

월랜드 첫 피칭 1이닝 무실점... 장단 9안타 타석 '활기'



오키나와 TIGERS 캠프를 가다
김여울 기자

요미우리와 연습경기 5-7 패
터너·양현종 구위 점검
홍재호 2·3루타 '멀티히트'

'호랑이 군단'의 1-3 선발이 나란히 출격해 전력 점검했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일본 오키나와 셀룰러 구장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를 치렀다.

제이콥 터너가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실전 피칭을 소화했고 조 월랜드는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에이스' 양현종의 첫 불펜 피칭도 이뤄졌다.

박준표, 임기준, 김세현, 윤석민에 이어 이준영까지 마운드에 부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 선수의 동반 출격은 KIA에 반가운 일이었다.

터너는 1회 4안타로 3실점은 했지만, 2루수 실책이 나온 2회 흔들리지 않고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2이닝 4피안타 1탈삼진 3실점을 기록한 터너는 앞선 등판보다 스피드를 더 끌어올렸다.

커브, 슬라이더, 투심 등을 구사한 터너의 직구 최고 구속은 152km까지 찍혔다.

월랜드는 첫 등판에서 16개의 공을 던지면서 1이닝을 소화했다. 안타는 하나 내렸지만 깔끔한 피칭으로 새 팀에서의 신고식을 치렀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두 시즌을 보냈던 만큼 월랜드에게는 익숙한 타자들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좋았다. 낮게 낮게 제구가 잘됐다"며 경기를 돌아본 월랜드는 "2년 동안 상대를 많이 해봤는데 당시에도 상대 성적은 좋았다. 좋은 타자가 많아서 집중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우려를 샀던 팔꿈치 상태도 괜찮다.

월랜드는 "큰 걱정은 없다. 지난해에는 팔꿈치 근육 불편했지만 지금까지는 좋다. 오늘도 상당히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인 조 월랜드가 20일 일본 오키나와 셀룰러 구장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첫 실전 피칭을 소화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좋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는 빠른 실전이다. 등판 준비가 잘 됐고, 다음 달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잠시 팀을 떠나야 해서 등판 일정을 앞당겼다.

월랜드는 "다음 주 등판할 예정이었고 8번 정도 피칭을 할 생각이었다. 며칠 전에는 준비하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지만 6번 정도 피칭을 하고

팔 상태가 잘 만들어졌다"며 "다음 달에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한다. 이대진 코치가 조금 일찍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하고 해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요코하마전(26일) 등판할 예정이다. 한 두 번 정도 더 던지면서 4-5이닝을 소화할 계획이다. 다음 등판에서는 꾸준히

던지는 게 목표다. 커터를 연마하고 있는데 다음 등판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고 던질 생각이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이날 불펜 피칭에 나서 25개의 공을 던지면서 2019시즌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편 이날 경기는 5-7, KIA의 패배로 끝났다. 연습경기 연패 탈출에는 실패했지만 장단 9안타가

나오는 등 모처럼 타석에 활기가 돌았다.

신범수가 0-3으로 뒤진 3회 1사 2루에서 좌측 3루타로 팀의 첫 타점을 올렸고, 김선빈의 적시타가 이어졌다. 홍재호는 2루타와 3루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3-7로 뒤진 8회 2사 1-2루에서 대타로 나온 한준수는 2타점 2루타를 기록했다.

/wool@kwangju.co.kr

'사랑방' 된 야구장

김기태 감독, 애제자 소개...하라 감독, 타격 원포인트 레슨

'사랑방'이 된 오키나와 셀룰러 구장이었다.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 KIA 타이거즈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드디어 만났다.

두 팀은 20일 일본 오키나와 셀룰러 구장에서 연습경기를 치렀다.

KIA와 요미우리는 21개의 안타를 주고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치열하게 맞섰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훈훈했다. 두 사령탑의 각별한 인연 덕분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요미우리에서 타격 코치와 퓨처스 감독을 지내면서 하라 타츠노리 감독과 인연을 쌓았다.

KIA의 타격 훈련 시간에 한국과 일본 취재진의 시선이 한쪽으로 집중됐다. 김 감독과 하라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재회를 한 것이다.

며칠 전 김 감독은 하라 감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날은 그라운드에서 적당으로 다시 만났다.

잠시 담소를 나누던 두 감독. 김 감독이 훈련하고 있던 KIA 선수들을 향해 손짓을 했다.

가장 먼저 안치홍이 호출됐고 하라 감독은 손을 내밀어 KIA를 대표하는 타자와 악수를 했다.

이어 '미래의 중심타자' 류승현과 최원준이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이날에는 하라 감독이 방방이를 집어 들었다. 류승현의 타격폼을 살핀 하라 감독은 직접 스윙도 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에 나섰다.

류승현은 "어렸을 때 요미우리 경기 중계를 통해 보던 감독님이 알려주시니까 색달랐다"며 "스윙이 나오는 각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태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과 거의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최원준에게는 요미우리는 반갑고 익숙한 팀이다.

최원준은 지난해 스프링캠프에서 김 감독의 주선으로 요미우리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사카모토 하야토, 아베 신노스케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

사카모토는 신인 시절 김 감독의 지도를 받아 스타 선수로 발돋움한 '각별한 제자'다.

최원준도 김 감독이 기대를 많이 하는 애제자다. 최원준이 더 큰 선수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김 감독은 일본의 대표적인 타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감독이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라는 게 김 감독의 생각이었다.

지난해 인연으로 최원준은 경기 전 요미우리 덕아웃을 찾아 사카모토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사카모토도 김 감독과 포옹을 나눴고, 아베는 훈련이 끝난 뒤 원정 감독실을 찾아 잠시 대화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두 팀의 훈훈한 만남은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이어졌다. 경기 전 양 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한 팀처럼 서서 밝은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wool@kwangju.co.kr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하라 감독(오른쪽)이 류승현(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타격 지도를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비오거나 다치거나...올해도 히로시마 징크스

연습경기 0-8 패...윤석민·이범호·이준영 부상에 중도 이탈

KIA 타이거즈 올리는 '히로시마 징크스'다.

KIA는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 시영구장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오키나와 캠프에는 세 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최고참' 이범호와 '좌완' 이준영이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포수' 김민식은 대안으로 이동했다. 올해도 계속된 KIA의 '히로시마 징크스'다.

이날 경기 전 덕아웃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상하게 히로시마만 만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비를 만나거나, 부상 선수 또는 이탈 선수가 발생했었다. 히로시마가 3년 연속 센트럴리그를 제패한

강팀이라는 점도 선수들의 긴장감을 높였다.

다행히 날씨는 앞선 히로시마전과 달리 괜찮았다. 하지만 타나카-키쿠치-쇼노-스즈키로 이어지는 강타선을 만난 한승현은 1사 1-2루에서 홈런을 허용했다. 잘 던졌지만, 잘 쳤고 바람까지 타면서 공이 우측 담장을 넘어갔다.

한승현은 홈런 뒤 2루수 땅볼로 투아웃을 잡았고,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 하지만 포수 김민식이 공을 때트리면서 아웃이 됐고, 히로시마의 공격은 계속됐다. 이후 3연속 안타로 한승현의 등판은 1이닝 4실점(3자책점)으로 끝났다.

타석에서는 1회와 9회 아쉬운 병살타가 나오면서 이날 경기는 0-8, KIA의 영봉패로 끝났다.

이 경기에서 김민식은 '우승 포수'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안으로 건너가 원점에서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발생한 부상이 안타까웠다.

수비 훈련 도중 '팀의 주축'인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캠프에도 중도 하차하게 됐다. 그리고 팀의 마지막 투수로 나왔던 이준영도 20일 이범호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준영은 베이스 커브 도중 베이스를 잘못 밟으면서 무릎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필승조로 맹활약한 좌완 임기준의 부상 속 이준영과 함께 좌완 불펜진으로 주목받던 이준영까지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KIA는 지독한 히로시마 징크스에 다시 또 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